

**The Gospel of Mark**

Sermon 36 – Sermon Notes

Title: “Death, resurrection and following Jesus”

Scripture: Mark 8:31-38

Date preached: May 14<sup>th</sup> 2023**Scripture: Mark 8:31-38**

31 And He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after three days rise again. 32 He spoke this word openly. Then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33 But when He had turned aroun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saying, “Get behind Me, Satan! For you are not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34 When He had called the people to *Himself*, with His disciples also, He said to them, “Whoever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35 For whoever desir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 36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his own soul? 37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38 For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of him the Son of Man also will be ashamed when He comes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the holy angels.”

31 예수님은 자기 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 일 만에 다시 일어나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33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 않고 사람의 일을 □□□□ 있다” 하고 꾸짖으셨다 34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 따르라 35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spend some time reviewing where we are in Mark's gospel. Last week we arrived at what many have termed the turning point in Mark's gospel.

Mark has beautifully laid out for us over eight chapters all that the Lord Jesus had done during the the first three quarters of His earthly ministry. He has called together a team of disciples. Together they have travelled mostly around the northern part of Israel, but also ventured into other areas such as Syro-Phoenicia and the Decapolis region.

Jesus has used His time wisely. Not a moment has been wasted of His limited time to announce to the world that the Kingdom has arrived. During this period of His ministry Jesus performed a large number of signs and wonders. These were purposefully performed to point, or direct people to His true identity. These signs were fully adequate to enable those who witnessed them to come to the right conclusion; that Jesus was indeed the Messiah.

Some of those He has encountered have made the connections and chosen to follow Him. Others, like the scribes and Pharisees have elected to ignore the evidence and reject Him. But up to this point in the gospel Jesus has not openly or explicitly identified Himself. But last week we reached as I said the turning point. Prior to this point the talk surrounding Jesus had been about “who He was.” The Lord Jesus now reveals to His chosen disciples who He is. So, from now on the talk will

be mostly focused upon, “What kind of Messiah is He, and what does it mean to follow Him?” Let us briefly review the event we commonly refer to as “Peter's confession.”

The Lord Jesus had led the disciples north in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This area about 40 kms north of Bethsaida had an interesting history. For centuries, it had been a centre for pagan worship. In ancient times Baal, the Canaanite god had been the deity worshipped. He was followed by the Greek god of nature Pan. In 20 BC a temple in honour of the Roman emperor had been built in the city. It was then not mere coincidence that Jesus chose this location to make His great announcement. He was not just making a statement to those men who accompanied Him. The Lord Jesus was also making a spiritual statement. He was announcing to those dark spiritual forces so prevalent in that area that their reign was now ended. That, H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was about to forever vanquish them.

It is as they are walking through this region that Jesus asks the disciples who people say He is. The Lord Jesus was a controversial figure. I'm sure that discussions regarding who He was and what He was doing frequently took place at that time. We know that He was the topic of conversation in the homes of the common working people right up to the royal palaces. As to who Jesus was, there were three main proposals put forward. Some thought He was the resurrected John the baptist. We know this was what Herod Antipas believed. Others thought He was the prophet Elijah who it was anticipated would return before the Messiah. Still others thought He was one of the other prophets, or that He fulfilled a role similar to the prophets of old. Again there was a general expectation that a prophet would again reappear on the scene to herald a new era of God's engagement with His people.

Jesus then directed the question directly at His disciples. Who do you say that I am? It is Peter who speaks up. But as I mentioned last week he is representing the views of all the disciples here. This is the first, but will not be the last time that Peter speaks on behalf of the group. Peter announces that Jesus is the Christ. He is clearly affirming that Jesus is the one anointed by God, the Messiah. We need to take a moment just to let the magnitude of Peter's statement sink in. He remember had been brought up as an orthodox Jew. The Jews knew from regular daily recitation of the *shema* (Deut 6:4) that God was one. Other nations worshipped a multitude of gods, but not the Jews. They worshipped one God. So Peter's confession, repeated in slightly different forms in all three synoptic gospels is monumental. He is confessing that Jesus is not merely another prophet, but that He was the final prophet, the promised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What led Peter to this conclusion? Mark does not explicitly tell us, but Matthew in his gospel tells us that it was revealed to Peter by God the Father (Matt 16:17). Mark I think want us to make a mental connection between all that the disciples have witnessed and finally coming to a true understanding. Finally, at long last their spiritual eyes are opened to the reality of Jesus. The episode closes with Jesus commanding the disciples to keep this revelation to themselves. There was grea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in Jesus day that the messiah would arrive. However the expectation was for a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This was not the role Jesus had been sent to perform. Therefore Jesus sought to avoid the attention that would undoubtedly come if people knew He was the Messiah. Such attention would hamper His mission of preparing the disciples for their mission once He was gone.

Today we will examine how Jesus begins to prepare the disciples for what is soon to come. We will also see Peter go from being the hero of the day to being soundly chastised by Jesus.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복습해 봅시다. 지난 주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전환점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마가는 주 예수께서 지상 사역의 처음 삼 분기 동안 행하신 모든 일을 여덟 장에 걸쳐 아름답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

분은 한 팀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여행했지만 Syro-Phoenicia 및 Decapolis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왕국이 도래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분의 제한된 시간을 한 순간도 □□□□□□□□. 이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리키거나 지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인자하고 그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 □□□□ □□ □□□□□□ □□□□ □□ □□□□□□.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점 이전에 예수님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는 어떤 메시아이며 그를 따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벳새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이 지역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은 이교도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에는 가니안의 신 바알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뒤를 그리스 자연의 신 Pan 이 따랐습니다. 기원전 20 년에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이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기 위해 이 장소를 선택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동행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언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그 지역에 만연한 어둠의 영적 세력에게 이제 그들의 통치가 끝났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영원히 정복하실 겁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주 예수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자주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평민들의 가정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가 믿었던 것임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예언자 엘리야라고 □□□□□□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다른 선지자 중 한 사람이거나 고대 선지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가 다시 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지만 이 이후에도 베드로가 그룹을 대표하여 종종 말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베드로의 말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쉼(신명기 6:4)을 정경적으로 매일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공관 복음서 모두에서 약간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베드로의 고백은 기념비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 약속된 그리스도, □□□□□□ □□□□□□ □□□□ □□□□ .

베드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마 16:17). 마가는 제자들이 그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목격한 후에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려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계시를 스스로 간직하라고

명하시면서 끝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큰 흥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군사 및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 이 메시아임을 안다면 그에게 쏟아질 관심을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관심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신후 제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르치는 데 방해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곧 다가올 일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시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베드로가 그날의 영웅에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는 모습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 **31 And He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after three days rise again.**

Now that finally the disciples know His true identity there is much teaching work to be done. The disciples must be fully prepared for the events that will shortly unfold. This will be a very difficult lesson for the disciples to comprehend. Evidence for this can be seen in the fact that Jesus will have to teach the same lesson to them on two further occasions (9:31 and 10:33). Why is this the case?

As we have seen Peter has rightly identified Jesus as being the Messiah. When a Jew heard this term certain ideas naturally formed in their minds. They typically pictured a political or military leader. Someone who would lead the nation and enable them to throw out their Roman oppressors, and once again determine their own destiny. The Messiah then was seen as a strong, charismatic leader. A person able to rally men around him and lead them to victory. So the things Jesus is saying here just don't compute with their messianic expectations. Let us look at what Jesus says.

The first thing to note is the term Jesus uses for Himself. He refers to Himself as the “Son of Man.” This is Jesus' favourite term to describe Himself. It occurs 81 times in the gospels and is only ever used by Jesus. What exactly does the term mean? Well, it is used in two distinct ways in the bible. It can be a term that just means “human being.” We see this for example when God calls the prophet Ezekiel “son of man” 93 times. The prophet Ezekiel was a man especially chosen by God, but he was still a normal human being. So, is Jesus saying that He is simply a human being? No, Jesus was far more than just a human being. He was the God-man. Fully God and fully human being. So in describing Himself as the “Son of Man” He is alluding back to Daniel 7. Here we see another far more significant way that “Son of Man” is used in scripture. Let me read verse 13 of Daniel chapter 7. Listen out for the term, “Son of Man.”

### **31 예수님은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 만에 다시 □□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마침내 제자들이 그분의 참된 신분을 알았으니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곧 펼쳐질 사건들에 대해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두번 더 주신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9:31 및 10:33). 왜일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올바르게 인지했습니다. 유대인이 메시아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정치 또는 군사 지도자를 떠올렸습니다. □□ 이르고 로마의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당시 메시아는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모아 승리로 이끄는 사람.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생각하지 말라 라는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봅시다.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인자(Son of Man)”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자신을 호칭할 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81 번 나오며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용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을 의미하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93 번이나 “인자(son of man)”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

님이면서 동시에 인간(God-man)입니다.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Son of Man"로 묘사하는 구절을 7 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Son of Man"가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된 부분입니다. 다니엘 7 장 13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Son of Man”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I was watching in the night visions,  
And behold, *One* like the Son of Man,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He came to the Ancient of Days,  
And they brought Him near before Him.  
(Dan 7:13)**

Here the prophet Daniel is recalling a dream that He received from God. In this dream/vision he witnesses an appearance of the Son of Man. This is the first biblical reference to the Messiah as the “Son of Man.” Here's another very interesting biblical fact. As you probably know the majority of the Old Testament was written in Hebrew. There are however a few passages in Aramaic.

One of the limited number of verses written in Aramaic is Daniel 7 verse 13.

In fact, it is the only time in the Old Testament that “*son of man*” is written in Aramaic (*bar enasha*). Why you ask is this important? For the following reason, when you see it written about Ezekiel or Daniel (in Hebrew) you can recognise that it is referring to a human being. When you read it written about Jesus you can know that is a unique Messianic title referring only to the Lord Jesus Christ.

Jesus then reveals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s I said such an idea would have not meshed with the common Jewish view of the messiah. A suffering Messiah! This was unthinkable. The Messiah was seen as a symbol of strength, not weakness. For this reason most Jews of Jesus' day believed that the Messiah would establish His kingdom without suffering and dying. But here Jesus identifies Himself with the “suffering servant” spoken of by the prophet Isaiah. The one who would come, be rejected by His own people and die with sinners, but then would triumph and be honoured by God.

Jesus goes on to say that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day will reject Him. These men were supposed to be experts on the law, God's revealed Word. They however were spiritually blind and hard-hearted. Finally, Jesus reveals to them that He will be killed but will rise again three days later. Naturally this makes no sense to the disciples. They seem to think, as we will see by Peter's interaction with Jesus that there is some mistake. That Jesus is not properly understanding what His role as Messiah will be. Let us read on.

□□□□□ □□□□□

**인자같은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앞에 인도되매 (다니엘 7:13).**

여기서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꿈 환상에서 그는 인자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인자Son of Man"라고 최초로 언급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성경적 사실이 있습니다. 아사다사피 구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구절이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몇 안되는 구절 중 하나가 다니엘 7 장 13 절입니다.

□□□□□□□□□□□□□□□□ "인자"(bar enasha)가 기록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용어가 에스겔이나 다니엘(히브리어)에 대하여 사용되었을 때는 그것이 사람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어가 예수님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면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독특한 메시아적 호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계사하십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러한 생각은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메시아!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악함이 아니라 강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통과 죽음 없이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고통받는 종”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실 분이지만 그 후에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배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율법의 전문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고 마음이 강퍽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계시하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알게되었지만 어떤 살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 **32 He spoke this word openly. Then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Jesus spoke openly, or perhaps plainly is a better interpretation. Often the disciples were left confused or perplexed by Jesus words. Frequently Jesus at times deliberately kept things hidden through the use of parables. But no longer. Prior to this revelation He had only hinted at the suffering to come. Here He was open and plain there could be no confusion or misunderstanding. He was to suffer, die and rise again. What He said offended and shocked the disciples. This was clearly not their expectation for the Messiah. Peter therefore steps forward and takes Jesus a short distance away from the other disciples. Its certainly possible that again he is acting on behalf of the whole group, and speaking for them all. He clearly feels that Jesus needs correction or rebuke. The word Mark uses here for “rebuke” (*epitiman*) is a strong one. It is the same word used to rebuke demons (Mark 1:25). So Peter obviously thought Jesus was in serious error and needed to be spoken to sharply. Let us see how the Lord responds.

### **32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일 것입니다. 종종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럽거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종종 예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의미를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하지 않으십니다. 이 계시 이전에 그분은 다윗을 고난에 대해 암시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명백하셨으며 더 이상의 혼동이나 오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을 화나게 하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으로 나아가 다른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예수를 데려갑니다. 다시 한 번 그가 전체 그룹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그들 모두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께서 사정이나 책망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마가가 여기에서 "꾸짖다"(rebuke)(에피티만)로 사용한 단어는 강한 단어입니다. 귀신을 꾸짖는데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막 1:25).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께서 심각한 잘못을 범하셨으며 날카롭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봅시다.

### **33 But when He had turned aroun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saying, “Get behind Me, Satan! For you are not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Now, Peter's intent or motivation in speaking up was good. It came from a place of love for His master and friend. He clearly thought that Jesus was in error or mistaken. That in saying these negative things He was likely to derail the movement or hamper its progress. However Peter was unwittingly being used by Satan. This is an important lesson we need to learn. When we argue with, or against God's Word we open the door to Satan's lies. Let me give you a very sad recent example of this.

The Church of England recently decided that they would “bless” same sex union marriages in church. They won't actually marry same sex couples, but they will give them a blessing, or an affirmation. They will publicly declare that same sex unions are a good thing. Now, the bible is very clear on what constitutes a marriage. In Genesis 2:24 it's laid out for us.

**Therefore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joined to his wife, and they shall become one flesh.**

That's pretty clear and straightforward. A marriage is the union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That's the definition of a marriage according to God who created the institution of marriage. Therefore that is all that should be blessed or affirmed as being good in church.

In arguing against what God has clearly said about marriage the door of the Church of England was swung open and Satan sidled in. Now the church is offering a blessing to that which God labels sin.

Peter in this situation was ignorant of God's will. He was thinking from the perspective of a Jew anticipating a political messiah. He did not appreciate how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were part of God's plan for salvation. They could not be avoided without destroying everything.

Just prior to this when Peter made his confession of Jesus as Messiah he had been a hero. Now, a short time later he has become a stumbling block, a barrier standing in the way of gospel progress. Jesus reprimand is sharp and to the point. Because Peter is thinking the thoughts of men, he is not thinking the thoughts of God. He is on Satan's side not God's. Therefore, he is to step back or aside and not hinder God's work. Let us continue.

**33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 썩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 않고 ○○○의 일을 ○○○ 있다” 하고 꾸짖으셨다**

베드로의 발언 의도나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스승이자 친구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가 잘못했거나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는 사역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지불식간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논쟁하거나 반대할 때 저희는 사탄의 거짓말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슬픈 최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교회는 교회내 동성끼리의 결혼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동성 커플 결혼을 거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축복하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동성 결합이 괜찮은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창세기 2:24 에 말씀하기 **“이러므로 ○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매우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에 따른 결혼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결혼만을 축복하고 선한 것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반대하는 논쟁에 영국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고 사탄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름 붙인 것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에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걸림돌이 되었고 복음의 진행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질책은 날카롭고 핵심적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 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합시다.

**34 When He had called the people to *Himself*, with His disciples also, He said to them, “Whoever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35 For whoever desir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

Jesus now shifts His attention or focus in order to bring in a wider audience. He is addressing here the requirements of those who wish to be His disciples. Clearly this encompasses the chosen 12 but also embraces many others who sought to sit at His feet and learn. It is of course equally relevant

for us today who desire to be Christ's loyal followers. Let us discover then what it means to truly follow Christ.

The first requirement is that one must give up their selfish prideful desires. A true disciple must learn to put Christ first and not themselves. True disciples are called to live our lives for Him. This is a great challenge. All of us are consumed by pride and selfish thoughts. We want to live lives that we find pleasing. We want to live satisfying our own preferences and desires. So having to give things up, serve others and sacrifice goes against all our natural sinful instincts. This however is what Christ requires. To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Christ has lost something of its impact today. For Mark's original readers the cross was a brutal and horrific reality of life. Today we wear crosses as items of jewellery or hang them on our walls. To Marks' original readers they were instruments of torture and death. So to carry the cross embraces the idea of being willing to sacrifice it all for Christ. To being wholly and completely committed to Him. To walking a lonely road toward Christ whilst being hatred and reviled by men. Why would anyone desire to walk this difficult road? Jesus gives us the reason.

The reason is that in living like this we will earn the ultimate reward. What Jesus means here is as follows. If a person wants to retain control of his or her life in the here and now, they will suffer the loss of something more valuable in the future. Or more simply if we reject Christ here on earth and live only for ourselves we lose the reward of eternal life. By contrast if we are willing to give up our own selfish demands now, and follow God faithfully, in the end we gain something of unimaginable value; eternal life with Christ. Let us read on.

**34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5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라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더 많은 청중을 모으기 위해 관심이나 초점을 바꾸십니다. 그분은 여기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 □□ □□□□ □□□□ . 분명히 이것은 선택된 12 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배우려고 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시다.

첫 번째 조건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만족하며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죄의 본능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날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복음의 원래 독자들에게 십자가는 잔인하고 끔찍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장신구로 착용하거나 벽에 걸어둡니다. 마가의 원래 독자들에게 십자가는 고문과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가까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그분께 온전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 □□ □□ □□□□ □□ □□ □□ 걷는 것 누가 이 험난한 길을 가고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살면 궁극적인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람이 현재 이 세상에서 삶을 자기 뜻대로 산다면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을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해서, 여기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영생의 상급을 잃게 된다. 반대로 지금 자신의 이기적인 요구를 가까이 포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다면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급-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 보시다.

**36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his own soul? 37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38 For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of him the Son of Man also will be ashamed**



**when He comes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the holy angels.”**

Every year Forbes magazine publishes a list of the richest people on the planet. At number one in the 2023 list was the French luxury goods tycoon Bernard Arnault. His net worth was estimated at being 211 billion US dollars.

At number two was Elon Musk with a net worth of 180 billion dollars. It's almost impossible for us to imagine this kind of wealth. The ability to buy whatever you want, when you want it. But we all know that money has its limitations. It cannot buy everything. It cannot for example buy real genuine love. It cannot buy back time passed or lost opportunities. And most importantly here it cannot buy our souls. The rich people on the Forbes list might have invested all their time and energy into amassing a fortune, but what happens at the moment of their death. All that wealth counts for nothing. All those years spent chasing money and material things will in essence have been a waste. From a worldly perspective they had it all, but from an eternal spiritual perspective they had nothing.

So Jesus questions here strike hard at the materialistic hearts we all possess. Don't we all think we'd be happier and more fulfilled if we were richer. Don't we all think things would be easier, and we'd have less worry and stress if our bank balances had more zeros on the end.

Jesus ask us how much we'd give to save our lost souls. If at the moment of death you were given that opportunity what would you pay to save your soul. To not end up in eternal torment. The answer of course is you would willingly give up everything. The sad reality is that as this point it is too late. There is no second chance to repent and come to Christ. That is why the bible frequently drives home the message that, **now** is the day of salvation. Don't put it off or delay. Don't leave it till tomorrow or some undefined moment in the future. Come to God now, repent and put your faith in Christ.

Jesus concludes here by talking about His future glorious return. When He comes in glory what will He do? He will judge and divide. This judgement will be based upon how people have responded to the message He proclaimed. Those that have rejected Christ. Those who have been more interested in pleasing themselves and living for today. Those who have found the gospel message to be shameful, embarrassing or foolish. These unbelieving people have no place in His future Kingdom.

We also however have to consider believers. Sadly many believers live in a way that demonstrates that they too are ashamed or embarrassed about their faith. Perhaps they don't want others to mock or ridicule them. For this reason they keep their faith a secret and are ineffective in advancing the kingdom. These people will not lose their place in heaven. They will however forfeit the rewards they might have received for good works or service.

So it's tough to be a disciple. Jesus is plain and straight-forward. His words challenge and convict us. No one following Him, either then or now can say they were not forewarned. The price is high for anyone wishing to give up all and follow Jesus. But equally the reward is great. Jesus promises a glorious eternity in His presence to those who sacrifice all to love and follow Him.

**36 □□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 □□ 자기 □□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 말을 부끄러워하면 □□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 □□ 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매년 Forbes 잡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목록을 발표합니다. 2023 년 목록에서 1 위는 프랑스 명품 재벌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였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2,110 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2 위는 순자산 1800 억 달러의 엘론 머스크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이나 잃어버린 기회를 되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브스 명단에 오른 부자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모

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죽음의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모든 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과 물질을 쫓아 보낸 그 세월은 본질적으로 낭비일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영원한 영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가진 물질주의적인 마음을 강타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더 부자라면 더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행 잔고의 끝에 더 많으면 일이 더 쉬울 것이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열마를 바치셨느냐고 물으십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신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이지요. 물론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죠.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시점에서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올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메시지를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연기하거나 자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그가 영광 중에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심판하고 분배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오늘을 사는 데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를 부  
**지금** . 이런 부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미래 왕국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는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비밀로 유지하고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들의 자리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행이나 봉사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도전과 확신을 줍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리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차라일 닦기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보상도 큼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 설교에 대해 말할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 **1 Are you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Peter's action of taking Jesus aside to rebuke Him is an interesting one. It is worthy of further investigation. How would we describe Peter? Certainly he was, in the main a loyal and devoted follower of Jesus. As one can see if they spend the time to look at Peter's life there were numerous ups and downs. Just like us there were times when he acted rashly, impetuously and foolishly. Equally as we saw in our sermon last time he was also at times perceptive and insightful. On this occasion he acted rashly and foolishly.

What had happened was plain to see. Peter along with the other disciples had certain messianic expectations. No doubt these varied from disciple to disciple. They were all young men so the prospect of national liberty, as well as being aligned with the political leader excited them. Perhaps they imagined glorious futures. Rich houses, tables piled up with food, a comfortable life and positions of power or prestige. It was these earthly thoughts or ambitions that drove Peter to challenge Jesus. How could He deny them these things since He was the Messiah. Peter hadn't made a deliberate choice to reject God and embrace Satan. But, and here is the key, he had allowed his mind to settle on the things of men and not the things of God. Satan as a result was able to take advantage.



above their own.

#### **4 We must be prepared to sacrifice all we have for Christ**

There is a popular children's action song called the “Hokey Cokey.” The song exhorts its participants to put one part of their body forward shake it all about and then withdraw it. That's how many Christians are as regards their faith. A small part is volunteered forward and then withdrawn. What Jesus wants is ALL of you, not just a part. Are you prepared to give your all for Jesus? He gave His all for you.

So to say being a disciple is not easy is an understatement. None of us is perfect. We are all works in progress. Let us then be resolved to trying harder. To spending more time sat at the feet of our Lord and master so that one day we will receive His praise as being a good and faithful servant.

## **2 예수님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댓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마가복음의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부터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훨씬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 **1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동기 및 추진력을 한쪽으로 치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2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완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야망을 추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매일 매일을 바치는 것입니다.

### **3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을 멈추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사랑하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 **4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키코키(Hokey Cokey)'라는 어린이를 위한 액션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참가자들에게 몸의 한 부분을 앞으로 뻗고 흔들고 빼고 다시 뻗고 흔들고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은 절제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